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의 成果와 課題

金 光 錫

▷ 目 次 ◁

- I. 序 論
- II.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의 採擇과 그 變遷
- III. 輸出伸張과 國際收支
- IV. 輸出增大의 産業成長效果
- V. 輸出主導型戰略의 效率性 問題
- VI. 要約 및 앞으로의 課題

I. 序 論

우리나라는 1980년의 例外的인 負의 經濟成長을 제외하면 1960년대초 이후 지속적인 高度成長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國內外的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1962~79년간에 우리나라 國民總生産額(GNP)은 不變價格 기준으로 年平均 9.7%의 成長率을 기록했으며 1人當 GNP는 1975년 不變價格기준으로 239美弗에서 816弗로 3倍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이 처음부터 이

렇게 순조롭지는 못했으며 따라서 60년대초 이전의 우리나라 經濟開發實績은 아주 低調했다. 1945년 解放當時부터 대략 1955년까지 韓國經濟는 日本經濟圈으로부터의 突然한 分離와 南北分斷으로 인해서 分裂되고 6.25動亂으로 大量破壞를 당하는 등 연속적인 試鍊을 겪어야 했다. 그러므로 1953년에 休戰이 성립되었을 당시의 韓國經濟는 막대한 外援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與件에 있었으며 따라서 50년대의 戰後復舊와 經濟安定을 위한 諸事業은 대부분 美國과 UN의 無償援助에 의해 資金이 支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戰後復舊期の 經濟成長은 一般國民이나 政府와 援助當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50년대 末頃에 와서 物價安定에는 어느 정도 成功을 거두었으나 生産의 增加는 完만하고 投資率도 낮고 輸出도 아주 적었다. 그러던 차에 1960~61년간에 연속적으로 있었던 두 政變은 政治的 및 經濟的 不安定을 다시 초래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經濟開發의 轉換點을 맞이하고 그후 계속해서 高度成長을 유지할

수 있었다. 韓國의 주어진 與件에서 이와 같은 高度成長으로의 轉換은 대체로 60년대 初頃에 있었던 開發戰略上的 變化에 크게 기인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물론 容易하게 計量化할 수 없는 여러가지 經濟的·政治的 및 社會的인 複合要因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겠지만 開發戰略을 중래의 內向的인 輸入代替中心 戰略에서 對外指向的 또는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으로 變更한 것이 지속적 高度成長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다.

本論文의 主目的은 韓國休戰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工業化戰略의 變化過程을 특히 60년대 초의 輸出主導型戰略으로의 轉換過程에 중점을 두어 論議하고 開發戰略의 轉換이 輸出 및 産業成長패턴에 미친 影響을 檢討하고 또한 앞으로의 開發戰略上的 課題에 대해서 論議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우리는 本序論에 뒤이은 第Ⅱ節에서 우리나라의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의 채택과 그 變遷過程을 특히 60년대의 戰略轉換期에 중점을 두어 論議하고 있다. 第Ⅲ節에서는 工業化戰略變化에 따른 效果分析의 一環으로서 우리나라 輸出伸張패턴과 그것이 國際收支에 미친 影響 등을 分析하고 있으며, 第Ⅳ節에서는 工業化戰略變化가 産業成長패턴과 그 成長要因 등에 어떤 影響을 주었는가 하는 점을 다루고자 하고 있다. 그 다음 第Ⅴ節에서는 급속한 輸出增大를 통해서 高度成長을 가져온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이 우리나라의 資源賦存條件으로 보아 效率的이었던가 하는 데 대한 檢討를 試圖하고 있다. 끝으로 第Ⅵ節에서는 工業化戰略上 豫想되는 課題를 論議하고 앞으로의 開發戰略方向에 관해서 論議하고자 한다.

Ⅱ.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의 採擇과 그 變遷

무릇 [開發戰略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經濟政策으로 具體化되어야 한다. 그것이 輸出主導型 工業化를 통한 開發戰略인 경우는 輸出主導型 工業化를 위한 産業政策으로 具體化되어야 한다. 그런데 市場經濟體制下에서 産業政策이란 결국 政府의 對産業誘因策(incentive policy)으로 集約되기 마련이다. 그 理由는 市場經濟體制下에서 産業을 直接 擔當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은 國營企業과 같은 例外的인 경우도 있으나 原則적으로 民間企業인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産業誘因策이란 결국 産業政策目標의 달성을 위한 手段이며 民間企業의 收益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施策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誘因策에는 外換率, 保護關稅, 租稅政策, 金利, 金融機關貸出, 政府補助, 輸入「쿼터」, 輸出入에 대한 量的 規制와 産業에 대한 直接的 價格 및 기타 統制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誘因策은 結果적으로 財貨와 用役의 相對價格의 變動을 통하여 그 財貨와 用役의 生産企業과 中間需要企業 收益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産業開發을 政府가 意圖하는 方向으로 誘導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産業誘因策의 歷史的 發展過程에 의하면 우리의 開發戰略과 그에 따른 産業政策은 대체로 3段階로 區分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 段階는 解放直後에서 1960년까지의 期間으로 容易한 輸入代替型 開發戰略이

그 特徵이었다. 1961~65년간은 容易한 輸入 代替段階가 끝나서 지속적인 輸入代替를 통한 經濟成長이 不振하게 되어 새로운 開發戰略으로 轉換을 이룩한 過渡의 段階였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은 輸入代替爲主 戰略에서 輸出主 導型戰略으로 轉換하기 위해서 政策的 試行錯誤도 많았지만 결국 輸出主導型戰略의 推進을 위한 誘因體制를 구축한 段階였다. 여기에는 1964년의 換率改革이 중요한 轉換點이 되었던 것이다. 1966년 이후는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의 本格的 實施에 의한 高度成長段階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1964년 이전에는 輸出振興을 위한 施策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1950年代에도 몇가지 1次商品의 輸出을 위한 政府補助가 있었다. 1960年代初에 와서는 外換率의 再評價와 또 全般的인 輸出入「링크」制의 採擇 등으로 輸出增大를 企圖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4년 이전의 輸出振興政策은 一時的인 性格을 띤 경우가 많았고 全體의인 經濟政策과의 一貫性도 결여하여 다른 相反되는 政策으로 인해서 그 效果가 相殺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러나 1964년의 換率再評價로부터 시작해서 政府는 一聯의 政策改革을 통해서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에 알맞도록 誘因體制를 一貫性있게 整備해 나갔던 것이다.

1964년 5월에 換率을 美貨 1弗當 130원에서 255원으로 약 100%나 높이고, 1965년 3월에는 單一變動換率制를 實施했다. 이 換率改革에 뒤이어 國內貯蓄增大를 위해서 銀行金利를 또한 약 100%나 引上했는데 이 金利改革은

輸出金融에 대한 優待金利는 引上치 않았으므로 輸出業者에 대한 相對的 誘因을 크게 높이는 데도 貢獻했던 것이다. 동시에 政府는 物價安定을 위한 財政安定計劃을 실시하고 稅制改革을 단행함으로써 「인플레」를 抑制하고 租稅收入을 劃期的으로 增大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政府는 輸出支援을 위해서 이 期間中 여러 가지 施策을 講究했는데 그중에는 輸出優待金融, 輸出商品과 그 原資材에 대한 間接稅減免, 輸出所得에 대한 50%의 租稅減免(1973年初에 廢止),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減耗率制度 등이 중요한 것이었다¹⁾. 그뿐 아니라 政府는 60년대초 大韓貿易振興公社를 設立하여 輸出振興을 위한 海外市場調查活動을 支援했던 것이다.

1965년 이후에도 經濟與件의 變化에 따라 輸出支援制度에 관한 一部 變動이 있었으나 그 基本的 構造는 모두 1961~65년간에 完成되었다고 判斷된다. 그리하여 1965년 이후에는 輸出增加가 본격화하게 됨에 따라서 輸入에 대한 政府의 直接的 規制도 점차 완화하고 또한 여러차례의 關稅改革을 통해서 平均關稅率을 낮추기도 했다. 그리고 특히 重要的 것은 外換率의 調整이 우리나라와 主要貿易相對國間의 인플레率 隔差를 相殺할 수 있을 정도로 適時에 이루어지지 못할 時期에는 各種 支援策의 積極적 운영을 통해서 事實상 實質效果 換率을 대체로 1965년의 現實的인 水準을 維持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輸出主導型 誘因體制는 대체로 現在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물론 基本的 工業化戰略에 있어서는 큰 變動이 없지만 그 戰略의 內容은 與件變化에 따

1) 各種 輸出支援策의 자세한 內容과 그 數量的 支援效果에 대해서는 金光錫·패리 E.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6 참조.

라서 많은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70년대 초까지는 輸出擴大를 위해서 勞動集約的인 輕工業部門 生産擴大에 주력해 왔으나 그후는 輸入代替와 輸出의 두가지 目的을 위한 重化學工業建設에 力點을 두어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이 弱化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그러나 1979~80년간에 第2次 石油波動과 國內의 政治的 混亂 등의 複合的 影響등으로 國內經濟가 어려움을 받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重化學工業部門의 過度한 投資로 더욱 累增됨에 따라 開發戰略을 다시 輸出主導政策의 強化方向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Ⅲ. 輸出伸張과 턴과 國際收支

앞에서 論議된 工業化를 통한 開發戰略의 展開過程은 韓國의 輸出伸張과 턴에 잘 反映되고 있다. 輸出主導型戰略으로 轉換하기 이전인 50年代의 商品輸出은 小規模일 뿐만 아니라 每年 1次產品의 需給條件에 따라서 起伏을 보였다. 예를 들면 주로 重石에 대한 높은 輸出需要 때문에 1953년 韓國의 商品輸出은 약 4千萬弗에 달했는데 이 水準은 1961년까지 다시 達成되지 못했다. 급속한 輸出伸張은 轉換期인 1961~65년 사이에 小規模의 基準에서 시작되어 그후 基準數值의 擴大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즉 1960~80년간에 名目商品輸出은 年平均 37% 정도의 伸張率을 달성함으로써 國際價格上昇要因을 差減한다고 하더라도 輸出額은 1960~80년간에 약 30%의 年間 成長率

을 기록하여 1980년의 名目輸出額은 世界總輸出額의 약 1%에 해당하는 175億弗에 달했다.

輸出의 급속한 成長은 輸出商品構造에도 많은 變化를 수반했다. <表 1>을 볼 것 같으면 50년대와 6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輸出은 重石, 鐵鑛石, 生絲, 寒天, 生鮮, 쌀 등과 같은 대부분 1次產品이 主種이었고 總輸出額에 대한 工產品輸出額의 비중은 60년대 초반까지 미미했다. 그러나 工產品輸出增加率은 60년대 초반 이후 1次產品輸出增加率을 훨씬 앞질러서 1980년에 와서는 總輸出額의 약 90%를 점하게 되었다. 1980년도 韓國의 主要輸出品目을 보면 주로 衣類, 電氣器機, 織物類 및 纖維絲, 신발類, 運搬用機械類(주로 船舶), 鐵鋼製品, 合板 등과 같은 工產品이 주종을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工產品輸出의 伸張은 輸出用生産을 위한 輸入의 급속한 增大를 必要로 했는데 1963년까지 거의 全無狀態이던 輸出用原資材 輸入額은 급속히 增大하여 1969년에는 輸出의 48%에 달했으나 그 이후로는 輸出用原資材 輸入比重은 점차 낮아져서 1980년에는 26% 水準으로 낮아지고 있다²⁾. 결과적으로 年間 純輸出增加率은 1963~80년간에 輸出增加率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輸出商品의 構造의 變化와 함께 輸出市場도 크게 多邊化시켰다. 1965년에 韓國 輸出의 약 60%가 두개 富國인 美國과 日本으로 輸出되었으나 이 2個國의 比重은 어느 정도의 起伏은 보였지만 1980년에는 약 44%로 축소되었는데 이와 같은 美·日의 比重減少는 유럽, 中東 그리고 아세아 以外地域 比重의 계속적인 增大 때문이다. 특히 中東에 대한 韓國의 輸出은 1970년까지도 總輸出額의 단지 1%에 불과하던 것이 世界石油波動 이후

2)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p. 208에 提示된 輸出用原資材 輸入統計를 輸出額으로 나누어 구했음.

현저한 增加를 가져와서 1980년에는 15%에 달했다. 그러나 日本을 除外한 他아세아諸國에 대한 韓國의 輸出은 相對的인 比重面에서 1965~80년까지 상당한 下落을 나타냈다. 輸出市場의 多邊化는 韓國의 輸出對象國家數로 따져볼 때 더욱 분명하다. 60년대 초반까지 韓國은 단지 19個國家에 輸出을 하였지만 輸出對象國家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1980년에는 163個國에 달했다(表 2 참조).

이러한 급속한 輸出伸張은 60년대 초반 이후의 GNP成長에 중요한 起爆劑 役割을 했다. 輸出增加率이 GNP成長率보다 훨씬 높아지게 됨에 따라 GNP에 대한 商品輸出比重은 60년대 초반의 약 2%에서 계속 上昇하여 80년대 초에는 35%에 달했으며 만약 純輸出額을 算出해 내기 위해서 韓國의 輸出用輸入額을 控除할 것 같으면 GNP에 대한 純輸出比重은 1963~80年間に 약 2%에서 27%로 增大했다³⁾.

〈表 1〉 SITC類別 및 商品別 輸出構造의 變化

(단위: 總輸出에 대한 比重, %)

	1954	1960	1965	1980
0. 食料品 및 산 動物	12.1	29.6	16.1	6.6
魚介類 및 同調製品	2.9	8.3	10.2	3.9
糧 穀	0.0	11.5	1.9	0.0
김	0.0	3.9	1.9	0.0
1. 飲料 및 煙草	0.1	1.4	0.5	0.7
2. 非食品原材料(鑛物性燃料 除外)	82.4	48.2	21.2	1.9
生 絲	15.8	3.0	3.9	0.1
鐵鑛 및 重石鑛	39.5	21.8	7.5	0.1
塞 天	5.7	2.8	1.3	0.1
3-4. 鑛物性燃料: 動物性 및 植物性油脂	0.1	4.1	1.1	0.3
5. 化 學 品	0.0	1.2	0.2	4.4
化學元素 및 同化合物	0.0	0.3	0.1	1.2
化學肥料	0.0	0.0	0.0	2.0
6. 原料別 製品	4.6	12.0	37.9	35.6
合 板	0.0	0.1	10.3	1.7
織物用纖維絲	0.0	0.0	1.3	3.6
織物 및 纖維製品	0.0	7.4	12.8	9.1
鐵 및 鋼鐵	0.0	1.4	7.3	9.4
7. 機械類 및 運搬用機械類	0.3	0.3	3.1	19.7
電氣器機	0.0	0.0	1.1	10.9
運搬用機械類	0.0	0.0	0.6	6.6
8. 雜 製 品	0.2	0.3	19.7	30.3
衣 類	0.0	0.0	11.8	16.8
신 발類	0.0	0.0	2.4	5.0
가발, 가면 및 類似製品	0.0	0.0	1.3	0.3
9. 未 分 類	0.2	3.0	0.1	0.5
總 輸 出	100.0	100.0	100.0	100.0
(百 萬 弗)	(24)	(33)	(175)	(17,505)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3) 이러한 比率은 1975년 不變價格基準의 國民所得計定에 따른 것임.

이와 같은 輸出伸張은 輸入의 增大도 수반했지만 貿易收支는 世界的 原油波動期를 例外로 하면 대체로 계속 好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50년대 중반 이후의 貿易收支의 變化趨勢를 보면(表 3 참조), 50년대 전반을 통해서 輸出이 輸入의 15% 미만에 不過한 극심한 貿易收支赤字를 시현하고 있었으나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점차 改善되어 70년대 초반에는 輸入에 대한 輸出比重이 80%를 上廻했다. 그러나 1974~75년에는 世界的인 第1次 原油波動으로 다시 70% 水準으로 떨어졌으나 그후 점차 회복되어 1977년에는 96%까지 上昇했다. 그러나 同輸出比重은 1978년 이후 다시 下降趨勢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1978년 중의 우리 國內經濟의 過熱狀態와 그후의 第2次 原油波動의 影響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한편 商品收支에다 用役을 加算한 經常收支를 볼 것 같으면 商品收支에서 보다는 輸出比重이 全般的으로 약간 높으나 變化趨勢는 비슷하다. 즉 60년대 초까지는 對輸入輸出比重이 35%이던 것이 70년대 초에는 90%까지 올라갔다가 1974~75년에는 油類波動으로 다시 70% 水準으로 下落되었다. 그후 급속히 好轉되어 1977년에는 98%에 肉迫하여 國際收支의 均衡을 거의 달성케 하였으나 1979~80년에는 다시 79~81% 水準으로 낮아지고 있다.

어떻든 이러한 사실은 世界的 石油波動과 같은 極端的이고 突發的인 事態만 없었더라면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의 推進으로 國際收支가 크게 改善되었을 것을 意味한다 하겠다.

N. 輸出增大의 産業成長效果

前述한 바와 같은 60년대 초 이후의 급격한 輸出伸張은 實質國民總生産의 成長을 加速化했는데 그러한 成長加速化는 특히 製造業部門에 의해서 主導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製造業部門附加價値의 實質成長率은 1953~

〈表 2〉 國別 商品 輸出
(단위: 總輸出에 대한 比重, %)

	1954	1960	1965	1970	1980
美 國	56.3	11.1	35.2	47.3	26.3
日 本	32.9	61.5	25.1	28.1	17.4
기타아세아	9.6	11.3	23.3	8.8	14.8
유 럽	1.1	13.1	12.2	9.1	17.8
中 東	0.0	0.0	0.6	1.0	14.6
기 타	0.1	3.0	3.6	5.7	9.1
總 輸 出 (百 萬 弗)	100.0 (24)	100.0 (33)	100.0 (175)	100.0 (835)	100.0 (17,505)
輸出對象國	5	19	24	126	163

資料: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各年度.
商工部, 『수출통계』, 1981.4월호.

〈表 3〉 國際收支經常計定收入/支出比率趨勢
(단위: 百萬弗)

	商品 收支			商品 및 用役收支		
	輸出 ¹⁾	輸入 ¹⁾	輸出/輸入比 (%)	輸出	輸入	輸出/輸入比 (%)
1954	17	129	13.2	45	132	34.1
1960	33	305	10.8	117	379	30.9
1965	175	420	41.7	290	488	59.4
1970	882	1,804	48.9	1,379	2,181	63.2
1971	1,132	2,190	51.7	1,620	2,639	61.4
1972	1,676	2,250	74.5	2,227	2,768	80.5
1973	3,271	3,837	85.2	4,121	4,620	89.2
1974	4,515	6,452	70.0	5,353	7,598	70.5
1975	5,003	6,674	75.0	5,884	7,997	73.6
1976	7,815	8,405	93.0	9,458	10,120	93.5
1977	10,047	10,523	95.5	13,074	13,284	98.4
1978	12,711	14,491	87.7	17,161	18,717	91.7
1979	14,705	19,100	77.0	19,531	24,121	81.0
1980	17,212	21,972	78.3	22,497	28,638	78.6

註: 1) f.o.b. 基準에 의한 通關資料임.
資料: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各年度.
韓國銀行, 『통계월보』, 1981.4월호.

62년에는 연평균 약 10% 정도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1962~79년에는 평균 18%로上昇했다. 이에 비해서 國民總生産은 두기간 중 연평균 4%에서 10%로 상승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로 經常國內價格기준 GNP에 대한 製造業部門附加價值比重은 60년대초의 14% 수준에서 70년대 末頃에는 27%로 증대했다.

이러한 製造業의 급속한 成長은 製造業內의 상당한 構造變化도 수반했다. 食品加工業, 纖維工業을 비롯한 輕工業部門의 附加價值는 1960년대초에만 하더라도 總製造業附加價值的 69%에 이르고 있었으나 이러한 比重은 점차 낮아져서 1979년에 와서는 46%에 이르고 있다. 反面에 重化學工業의 比重은 동기간 중 31%에서 54%로 계속 擴大해 왔다⁴⁾.

그러면 이러한 産業成長 및 構造變化와 輸出伸張간의 因果關係는 무엇인가? 産業成長 및 構造變化가 과연 어느 정도 輸出伸張에 의한 直接 및 間接的 效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解答을 구하기 위해서 産業關聯表體系를 利用한 하나의 分析方法을 活用코자 한다.

經濟成長의 要因을 分析키 위해서는 經濟成長을 主要生産要素, 즉 勞動(教育포함), 資本 및 輸入 등 投入量變化와 그 生産性向上과 관련시키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産業成長에 대한 輸出의 效果 또는 寄

與度를 分析키 위해 産業關聯表體系를 利用한 Syrquin方法⁵⁾을 사용키로 한다. 이 方法은 Chenery, Shishido 및 Watanabe의 先驅의 研究結果⁶⁾를 最近에 修正한 것이다. 이 接近 方法은 基本的인 「需要—供給均衡」에서 出發하여 生産構造의 變化를 여러가지 需要要件에 歸着시키려는 方法이다. 비록 Syrquin方法에서는 生産構造變化가 比例的 成長으로부터의 偏差나 또는 絕對成長值로 計測되지만 우리는 絕對的 成長值(또는 first difference)에 의한 方法을 사용키로 한다.

우리의 分析을 위해서는 4個年度의 産業關聯表(1955, 1963, 1970, 1975)가 사용되었는데, 첫째로 이 4개의 表가 一貫性을 갖게 하기 위해서 輸入資料를 再分類했다. 즉 韓國이 過去의 非競爭輸入品目을 일단 生産하기 시작하면 이 非競爭輸入品目は 競爭輸入品目으로 바뀌기 때문에 各 産業關聯表마다 非競爭 또는 競爭輸入品目錄이 變하게 되므로 가까운 장래에 國內生産에 의해서 代替될 수 없는 自然資源集約的 輸入品을 除外한 모든 非競爭輸入品은 競爭輸入品目에 統合시켰다. 둘째는 1970年과 1975年 表의 殘廢物(scrap)分類는 그 前年度 表의 處理方法과 一致하도록 調整시켰다. 셋째로 韓國의 産業關聯表上 附加價值的 一部로 分類된 企業消費는 中間投入物의 一部로 再分類시켰다⁷⁾. 끝으로 이 4個年度의 産業關聯表는 關稅·內國間接稅 및 輸入數量規制로 초래되는 國內價格의 歪曲效果를 除去시키기 위해서 1968년 不變國際價格으로 「디플레이트」시켰다.

이러한 不變國際價格基準의 産業關聯表에 의한 1955~75년간의 産業成長要因의 分解結果는 <表 4>에 要約되어 있다. 비록 이 分解

4) 이상의 統計數値는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8 및 『통계월보』, 1981. 1에 실린 “1980年 國民總生産(暫定推計)” 資料에 立脚한 것임.

5) Moshe Syrquin, “Sources of Industrial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World Bank, 1976.

6) H.B. Chenery, S. Shishido and T. Watanabe, “The Patterns of Japanese Growth, 1914-1954,” *Econometrica*, Vol. 30, No. 1, Jan. 1962.

7) Larry Westphal and Kyu Soo Kim, “KDI Input-Output Data Bank” (Revised), KDI, 1977.

結果가 2個의 期間區分(1955~63年間, 1963~75年間)으로 提示되어 있지만 나중期間의 結果는 1963~70年과 1970~75年間的 分解結果를 統合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論議를 單純化 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60年代 초반의 政策轉換의 效果를 檢討하는 데도 必要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表는 成長 要因의 直接的 및 全體的 效果를 모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直接的 效果와 全體的 效果의 差異는 여러가지 獨立的 要因의 直接的 變化에 의한 後方聯關效果를 反映한다는 사실

이다.

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總量的 生産成長에 대한 여러가지 獨立的 要因의 直接的 寄與도와 全體的 寄與도의 상대적 크기는 兩期間(1955~63년간과 1963~70년간)에 모두 상당히 달라졌다. 예를 들어 輸出擴大의 直接的 寄與도는 前期에는 總國民產出成長의 6% 가량이었으나 後期에는 이것이 19%로 增大했으며 여기에 반해 輸入代替의 直接的 寄與도는 이 兩期間 사이에 5%에서 약 1%로 축소되었다. 이것과 비슷하게 輸出擴大의 全體的 寄與

〈表 4〉 産業別 生産成長의 要因(1955~75)
(Syrquin方法-1次差異)

(단위 : %)

	國內需要擴大		輸出增大		輸入代替		技術變化	總生産 增大 (10億원)
	直接	全體	直接	全體	直接	全體	全體	
〈1955~63〉								
1. 農 林 水 産 業	126.0	93.2	3.3	7.0	-29.3	-22.4	22.2	102.7
2. 鑛 産 業	93.3	57.9	14.4	19.3	-7.7	40.5	-17.7	12.3
1次産業計	122.5	89.4	4.5	8.4	-27.0	-15.7	17.9	115.0
3. 食 品 加 工 業	77.2	65.1	6.2	7.8	16.6	15.4	11.7	61.4
4. 纖 維 産 業	36.2	68.7	10.8	20.0	53.0	102.1	-90.8	25.5
5. 最 終 消 費 財	79.9	70.0	4.7	6.0	15.4	17.4	6.6	41.4
6. 中 間 財	64.8	48.8	6.0	7.9	29.2	37.5	5.8	90.3
7. 機 械 類 및 輸 送 用 機 器 製 造 業 計	73.1	41.1	3.1	6.4	23.8	34.0	18.5	22.6
8. 社 會 間 接 資 本 및 其 他 서 비 스 計	102.6	102.3	5.4	11.4	-8.0	8.6	-22.3	96.0
	89.4	75.4	5.5	9.2	5.1	16.5	-1.0	452.2
〈1963~75〉								
1. 農 林 水 産 業	111.6	123.3	12.8	28.5	-24.4	-16.8	-35.0	349.5
2. 鑛 産 業	119.9	98.1	5.0	32.8	-24.9	-0.2	-30.7	41.7
1次産業計	112.4	120.6	12.0	28.9	-24.4	-15.0	-34.5	391.2
3. 食 品 加 工 業	94.0	88.2	6.9	11.7	0.9	-0.2	0.3	553.0
4. 纖 維 産 業	71.4	32.1	25.3	56.9	3.3	2.1	8.9	454.3
5. 最 終 消 費 財	56.2	50.6	46.7	52.5	-2.9	-2.0	-1.1	578.0
6. 中 間 財	74.4	46.8	15.7	34.4	9.9	15.6	3.2	1,156.3
7. 機 械 類 및 輸 送 用 機 器 製 造 業 計	56.5	41.5	38.1	45.9	5.4	9.8	2.8	541.7
8. 社 會 間 接 資 本 및 其 他 서 비 스 計	71.1	51.5	24.7	38.8	4.2	7.0	2.7	3,283.3
	92.5	80.6	8.4	19.5	-0.9	1.9	-2.0	1,772.7
	81.0	66.0	18.5	31.8	0.5	3.7	-1.5	5,447.2

註 : 1968年度 不變國際價格기준의 1955, 1963, 1970 및 1975年度の 各産業聯關表에서 計算해 낸. 모든 推定値는 Laspeyres와 Paasche指數로 도출된 推定値의 算術平均値임.

도는 1955~63년간에 약 9%에서 後期에는 32%로 급속히 增大한 반면 輸入代替의 全體的 寄與도는 약 17%에서 단지 4%로 축소되었다. 國內需要擴大의 直接的 寄與도와 全體的 寄與도는 모두 이 兩期間 사이에 축소되었다. 技術變化 혹은 投入係數變化의 寄與도는 거의 變化가 없었다.

1955~75년간에 製造業部門의 生産增大는 대단히 급진적이어서 他部門의 生産增大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製造業部門의 生産增大는 前期에는 國內需要擴大와 輸入代替에 주로 起因했지만 後期에는 國內需要擴大와 輸出擴大에 起因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 兩期間을 통해 內需擴大가 製造業部門生産의 成長을 위한 가장 중요한 要因이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貿易效果는 이 兩期間에 서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前期에 製造業生産增大의 약 35%를 說明해 주던 輸入代替의 全體的 寄與도는 後期에 와서는 단지 7% 정도로 축소되었음에 반해 輸出擴大의 全體的 寄與도는 兩期間 사이에 9%에서 39%로 현격한 增大를 가져왔던 것이다.

製造業部門內의 主要業種別 成長要因을 檢討해 볼 것 같으면 一般的으로 國內需要擴大는 兩期間에 個別業種 生産成長에 계속적으로 큰 寄與를 나타냈으나 貿易效果는 兩期間 사이에 反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個別産業 生産의 成長에 대한 輸入代替의 全體的 寄與도가 後期에 와서는 대체로 낮아지고 있지만 中間財工業과 機械工業의 成長에 대한 輸入代替의 全體寄與도는 각각 16%와 10%로서 다른 業種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한편 食品工業, 纖維工業과 最終消費財工業 등 輕工業分野 成長에 대한 輸入代替의 寄與도는 後期에는

負(-)의 數値를 나타내거나 無視할 정도로 적어졌으나 輸出擴大의 寄與도는 食品工業의 낮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50%를 上廻하여 모든 業種中에서 가장 높은 輸出寄與도를 나타냈다.

1次産業部門의 生産增大는 GNP成長率보다 낮았는데 예상된 바와 같이 兩期間 모두 國內需要擴大에 주로 起因했다. 輸出擴大와 輸入代替의 相對的 寄與도를 檢討해 볼 때 이 兩期間 동안에 輸出擴大의 全體的 寄與도는 增大되었으나 輸入代替寄與도는 不變이었다. 輸出擴大의 寄與도는 8%에서 29%로, 그리고 輸入代替의 寄與도는 前後期를 통해서 15~16%의 負의 率을 나타냈다.

이러한 結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結論은 1955~63년간에는 産業成長을 위해서 輸入代替가 輸出擴大보다 훨씬 중요한 役割을 했지만 後期에 와서는 相對的인 寄與도가 反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結論은 어떤 면에서는 60년대 전반의 戰略轉換은 工業化「패턴」變化에 큰 影響을 미쳤다는 假說을 確證시켜 준다. 아 물론 全期間을 통해서 보면 後期の 生産增大가 前期보다 壓倒的으로 컸기 때문에 輸出擴大는 輸入代替보다 훨씬 成長에 큰 寄與를 했음이 分明하다.

V. 輸出主導型戰略의 效率性 問題

한국의 開發戰略은 한마디로 工業化戰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1960年代初에 輸入代替型 工業化戰略에서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

으로 轉換되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工業化 戰略下에서의 要素利用 「패턴」을 比較해 봄으로써 要素活用面에서 본 두 開發戰略의 相對的 效率性を 검토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初期에 관한 資料가 매우 貧弱하기 때문에 우리는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下에서의 本源의 生産要素의 配分과 活用단을 검토해 봄으로써 그 戰略의 效率性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960年代初 한국은 Lewis와 Ranis 및 Fei에 의해 定義된 勞動供給過剩經濟(labor surplus economy)의 典型的인 特性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⁸⁾. 그러므로 적어도 1960年代에 있어서는 한국의 比較優位가 資本集約的 生産活動보다는 勞動集約的 生産活動에 있었음을 쉽게 假定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 나라의 比較優位는 그 나라의 要素賦存條件에 의해서만 決定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가지 條件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輸出指向的 工業化戰略의 資源配分的 效率性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貿易의 要素集約度의 觀點에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貿易의 要素集約度에 관한 두가지 推定値가 <表 5>에 要約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提示된 두가지의 推定値는 여러가지 이유로 직접 比較해 볼 수 있는 資料는 못된다⁹⁾. 첫째, Westphal-Kim의 推定은 全的으로 1968년의

要素投入係數를 사용하여 推定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部門內에서의 生産物構成과 또한 部門別 要素投入係數는 1960~68년 사이에 固定되어 있던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Hong의 推定은 各年度別로 다른 要素投入係數에 依據하고 있으며 따라서 部門內의 生産物構成의 變化와 部門別 要素集約度의 變化가 考慮되어

<表 5> 商品類別 要素集約度, 1960~75年
가. Westphal and Kim에 의한 勞動/資本比率 推定値¹⁾

	1960	1963	1966	1968
直接的要素所要				
1次産業				
國內生産	16.60	17.20	17.08	17.16
輸出	8.19	6.89	6.15	5.69
輸入	16.58	15.91	16.13	15.48
製造業				
國內生産	2.97	2.89	2.67	2.64
輸出	2.72	3.02	3.24	3.55
輸入	2.09	1.93	1.98	2.33
總要素所要				
1次産業				
最終需要—輸入	11.46	11.79	12.10	12.61
輸出	6.55	5.75	5.13	4.81
輸入	11.99	11.50	11.90	11.30
製造業				
最終需要—輸入	5.43	5.41	5.03	5.14
輸出	3.74	3.71	4.09	4.29
輸入	2.77	2.40	2.40	2.74

나. Hong에 의한 勞動/資本比率推定値²⁾

	1963	1966	1968	1970	1973	1975
直接的要素所要						
輸出	1.73	1.29	1.16	0.93	0.58	0.35
競爭輸入	1.44	0.72	1.02	0.96	0.64	0.58
總要素所要						
輸出	1.40	1.00	0.87	0.68	0.47	0.32
競爭輸入	1.06	0.63	0.68	0.64	0.38	0.36

註: 1) 延人員/百萬圓(1965年 不變價格)
Westphal and Kim(1977), pp. 4~47 參照.

2) 延人員/千弗(1970年 不變價格)
Hong의 資本/勞動比率을 두 推定値의 比較를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資本比率로 轉換시켰음. Hong(1979), pp. 32~33 參照.

8) A. Lewis,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The Manchester School*, 1954. 5 및 G.R. Ranis and J.H. Fei,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1.

9) Westphal and Kim(1977); Wontack Hong,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KDI, 1976; Wontack Hong,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KDI, 1979 참조.

있다. 둘째로, Westphal과 Kim의 推定은 1965년 不變國際價格기준인 데 비해서 Hong의 推定은 1970년 不變國內價格기준이다. 세째로, 두가지 推定에 使用된 商品의 分類가 다르기 때문에 直接的인 比較가 不可能하다.

Westphal-Kim의 推定에 따르면 1960~68년 에 걸쳐 製造業輸出의 總勞動集約度(直接勞動集約度+間接勞動集約度)와 直接勞動集約도는 모두 輸入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次産業部門에서는 輸出의 勞動集約도가 輸入의 것보다 낮은데 이것은 한국의 自然資源賦存條件上 상대적으로 資本集約的인 鑛產物을 輸出하고 勞動集約的인 農產物을 輸入하는 데서 연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Hong의 推定은 좀더 長期間을 包括하고 있는데 1968년 輸出의 總勞動集約度 및 直接勞動集約도는 대체로 競爭輸入의 그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역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輸出의 勞動集約도는 1968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1970년에는 競爭輸入의 勞動集約도와 거의 비슷하게 되고 1975년에 이르러서는 輸出의 總勞動集約도와 直接勞動集約도가 모두 競爭輸入의 것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Hong은 美國과 日本의 要素投入係數를 사용하여 自然資源集約的인 輸入을 제외한 非競爭輸入의 要素集約도를 推定하였다. 外國의

投入係數를 사용한 非競爭輸入部門의 要素集約度推定値는 國內係數에 의한 推定値들과 직접적으로 比較될 수는 없으나 그 결과를 輸出 및 競爭輸入과 比較했을 때 非競爭輸入의 資本集約도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¹⁰⁾. 競爭輸入과 非競爭輸入을 함께 보면 輸出에 비해서 資本集約도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근래에 非競爭輸入이 總輸入의 20~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相違點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개의 推定値는 적어도 60년대 중에는 한국이 相對的으로 勞動集約的인 商品을 輸出하고 資本集約的인 商品을 輸入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데는 一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결과는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이 한국의 比較優位에 부합하는 効率的인 生産要素의 配分을 가능케 했다는 結論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Hong의 研究結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 輸出部門의 勞動/資本比率이 급격히 下落하고 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이와 같은 輸出의 勞動集約度 下落은 우리나라의 賃金-資本費用比率(wage-rental ratio)의 上昇에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한국의 實質賃金水準은 60年代 後盤부터 크게 上昇했는데 그 理由는 勞動生産性이 많이 向上되었고 또한 勞動需要가 對中東建設用役輸出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60年代 中盤 이후 海外資本導入의 증가는 企業의 資金調達을 보다 容易하게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1969년 이후 銀行平均貸出利率의 점차적인 하락과 物價上昇率의 加速化는 資本의 「코스트」를 더욱 감소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賃金-資本費用比率이 70년대에 들

10) Hong(1976), pp.93~102 및 Hong(1979), pp.31~35 참조.

11) Kim and Roemer(1979)는 1957~75년간의 賃金/資本費用比率指數를 다음과 같은 數式에 의해서 計算해서 보여주고 있다. 즉, $W/(i+d)P_t$, 단, W =製造業의 平均名目賃金指數, $i+d$ =金融機關貸出金利+10% 減價却充當金, 그리고 P_t =資本材의 都賣物價指數, 어떻게 이런 計算結果에 의하면 한국의 賃金/資本費用比率은 1957~68년간에는 대체로 安定勢를 유지했으나 그후 급속히 上昇하기 시작하여 1969~75년간에는 연평균 20%의 上昇率을 나타냈다(Kim and Roemer, p.73 참조).

어와서 급속히 上昇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雇傭增大는 실제로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급속하게 이루어졌을지 모르며 이는 現在의 失業率 약 5%에 비추어 볼 때 매우 所望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단순히 雇傭極大化만을 위해서 資本蓄積을 게을리했을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과 같은 GNP 및 輸出의 높은 成長率을 계속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 理由는 先進國들의 貿易保護政策이 資本集約的 商品보다는 勞動集約的 商品의 輸入을 더욱 심하게 制限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賃金-資本費用比率의 급속한 上昇은 우리나라의 資本蓄積을 加速化시켰으며 産業生産에 있어서 資本에 의한 勞動代替를 촉진했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초 이후의 重化學工業建設의 적극적 推進過程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政府의 公表된 政策方向은 한국에 比較優位가 있는 選別的인 技術勞動集約的 重化學工業만을 發展시키는 데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賃金-資本費用比率의 급속한 上昇 때문에 經濟性을 無視한 資本集約的인 産業에 대한 投資가 過度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資本集約的 産業에 대한 지나친 投資는 1979년 이후 石油波動과 그 餘波로 인한 우리 經濟의 어려움을 더욱 增加시켜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70년대초 이후에 우리나라의 開發段階로 보아 選別的인 重化學工業의 推進은 불가피했으나 지나치게 資本集約的 工業에 대한 過多投資로 工業化戰略의 要素配分面에서의 效率性이 크게 低下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V. 要約 및 앞으로의 課題

韓國의 開發戰略은 60년대 초반에 輸入代替型 工業化戰略에서 輸出主導型戰略으로 方向轉換을 했다. 이러한 戰略轉換을 위해서는 약 4~5년간의 過渡期를 거쳐야 했지만 그러한 轉換은 지속적이고도 급속한 經濟成長을 위한 前提條件을 마련해 주었다. 輸出은 급격하게 증대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工產品輸出에 의해서 主導되었다. 商品輸出構造도 多樣化되고 상당한 市場의 多邊化도 이룩되었다. 輸入도 60년대 초반 이후에 계속 擴大되었지만 世界的 原油波動期를 例外로 하면 輸出의 增加速度가 더 빨랐기 때문에 貿易收支와 國際經常收支는 점차로 改善되는 경향을 보였다.

急激한 輸出伸張은 國民總生産의 지속적인 高度成長을 可能케 했는데 특히 製造業部門의 成長 및 構造變化는 다른 部門에 비해서 급격했다. 따라서 60년대초 이후의 經濟全體의 變化패턴은 輸出指向的 工業化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1955~63년간과 1963~75년간의 産業別 成長要因의 分解結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兩期間에 걸쳐 産業成長에 대한 國內需要擴大의 相對的 寄與度는 계속 높았으나 貿易效果面에서 보면 産業成長의 主要因은 1955~63년간의 輸入代替에서 그후에는 輸出擴大로 바뀌어졌던 것이다.

韓國의 國際比較優位가 비교적 勞動集約的 産業에 있다고 假定하면 韓國의 輸出主導型 工業化는 적어도 60년대말까지는 本源的 生産要素의 效率의 配分 및 活用을 可能케 했다. 그

러나 70년대초부터 韓國輸出의 勞動集約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最近의 賃金-資本費用比率의 급격한 上昇과 또한 勞動集約의 商品輸入을 더욱 엄격히 規制하는 先進國家의 貿易保護政策에 기인되는 바 크다. 이러한 輸出의 勞動集約도를 낮추는 두가지 要因은 또한 70년대초 이후의 重化學工業建設推進過程에서도 일부 지나치게 資本集約的 工業에 대한 投資를 증가시키는 口實을 주기도 했다. 이것은 産業生産에 있어서 급속한 資本集約度 上昇으로 要素配分の 效率性이 70년대에 들어와서 점차 낮아진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어떻든 우리 經濟는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의 성공으로 급속한 成長 및 構造變化를 이룩했으나 1979년부터는 第2次原油波動과 그에 따른 世界的 景氣沈滯, 그리고 10.26事態 이후의 政治的 混亂 등의 複合的 要因으로 經濟成長率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休戰 이후 처음으로 -6.0이라는 높은 負의 成長도 감수해야 했다¹²⁾. 금년에는 農業生産도 平年作 정도는 되므로 國內經濟指標의 變化趨勢로 보아 6% 내외의 經濟成長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그 정도는 달성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따라서 世界的인 第2次原油波動과 國內의 政治的 事態로 야기된 經濟的 어려움은 이제 그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國內外 經濟與件變化展望에 비추어 우리의 開發戰略을 어떻게 適應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이미 第2次原油波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國際收支赤字가 상당히 擴大되어 있지

만 앞으로는 國際的인 相對的 高油價는 계속 될 것으로 展望되므로 輸入原油에 全的으로 依存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國際收支赤字가 중요한 政策課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을 앞으로 더욱 強化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強化方向은 從來와 같은 政府支援의 擴大가 아니고 現實的인 換率維持와 對外開放增大에 의한 競爭要素의 擴大를 통해서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向上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勞動力人口는 앞으로 80년대 말경까지 연평균 3%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러한 展望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産業開發戰略도 지나치게 資本集約的 産業을 피하고 技術勞動集約的 産業을 적극적으로 育成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開發段階로 보아 重化學工業의 建設도 推進해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過慾된 推進에서 發生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要素賦存條件에 알맞는 産業만을 選別的으로 育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本源的 要素價格의 歪曲을 막아야 한다. 過去의 일부 資本集約的 産業에 대한 過多投資도 要素價格歪曲에 기인되는 바가 컸다고 判斷된다.

셋째, 우리 經濟에는 인플레이가 慢性的으로 지속되어 그것이 거의 體質化되고 있는 형편이며 따라서 이제 物價安定은 成長 이상으로 중요한 課題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競爭力向上을 위한 궁극적인 方案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內의 自發的 貯蓄增大과 같은 經濟構造改善의 方便으로도 物價安定은 꼭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物價安定을 이룩하면서 經濟成長도 推進되어

12) 물론 이러한 負의 成長은 異常氣溫으로 인한 農業生産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되는 바가 더 컸다.

야 하며 安定目標을 위해서는 成長率의 어느 정도의 희생도 필요로 할지 모른다. 그러나 中長期的인 原油供給制約과 國際收支展望에 비추어 過去와 같은 超高速成長은 그 妥當性이 없기 때문에 安定基盤 위에서 적어도 增大되는 勞動力人口에게 充分한 就業機會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成長을 이룩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네째, 지금까지의 成長最優先政策에서 약간 後退하여 앞으로는 一般國民의 要求에 副應하도록 社會福祉向上을 위한 政府支援의 增加도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社會福祉向上을 위한 政府役割增大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高度成長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政府에서 直接·間接적으로 부담하던 産業部門支援을 축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企業部門活動은 民間「이니셔티브」에 의해서 自律적으로 이룩

되도록 하고 政府의 支援과 直接的 介入은 축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政府가 社會福祉向上과 産業支援의 두가지 課業을 동시에 추구하기에는 우리의 財政形便이 허락치 않을 것이며 可能하다 하더라도 西歐諸國의 例에서처럼 財政的 規模擴大에 따른 經濟的 非能率의 擴大로 成長을 阻害하게 될 可能性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로 海外資源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自然資源集約的인 産業의 育成은 엄격한 經濟性檢討를 통해서 自制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특히 原油의 中長期的인 供給展望이 不透明하고 또한 다른 資源의 경우에도 대체로 國際的인 資源民族主義傾向의 대두로 그러한 資源의 長期的 安定供給이 不確實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런 資源集約的 産業에 比較優位를 갖는다는 것은 드문 例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1980.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金光錫,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36, 1980.
 金光錫·래리 E.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9, 1976.
 商工部, 『수출통계』, 1981. 4.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8.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各年度.
 韓國銀行, 『産業關聯表와 그 附屬資料』, 1955, 1963, 1970, 1975.
 韓國銀行, 『통계월보』, 1980. 1, 1981. 4.

Chenery, H.B., S. Shishido and T. Watanabe, "Patterns of Japanese Growth, 1914-1954, *Econometrica*, Vol. 30, No. 1, Jan. 1962.
 Hong, Wontack,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Seoul, KDI Press, 1976.
 _____,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Seoul, KDI Press, 1979.
 Kim, Kwang Suk and Michael Roemer,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

- public of Korea: 1945-197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Kim, Mahn Je and Kwang Suk Kim, et al.,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197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Lewis, Arthur,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The Manchester School*, May 1954.
- Ranis, G.R. and J.H. Fei,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1.
- Syrquin, Moshe, "Sources of Industrial Growth and Change: An Alternative Measure," World Bank, 1976.
- Westphal, Larry and Kyu Soo Kim, "KDI Input-Output Data Bank" (revised), Seoul, KDI Press, 1977.
- Westphal, Larry and Kwang Suk Kim,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Korea*,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63, Washington, D.C., 1977.